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2014.05.19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백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장기적인 위기의 징후

피케티는 몇십 후의 일은 아무도 “수학적 정확성”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통계를 통해 아이들의 앞날에 “레미제라블”을 연상케 하는 19세기말의 상태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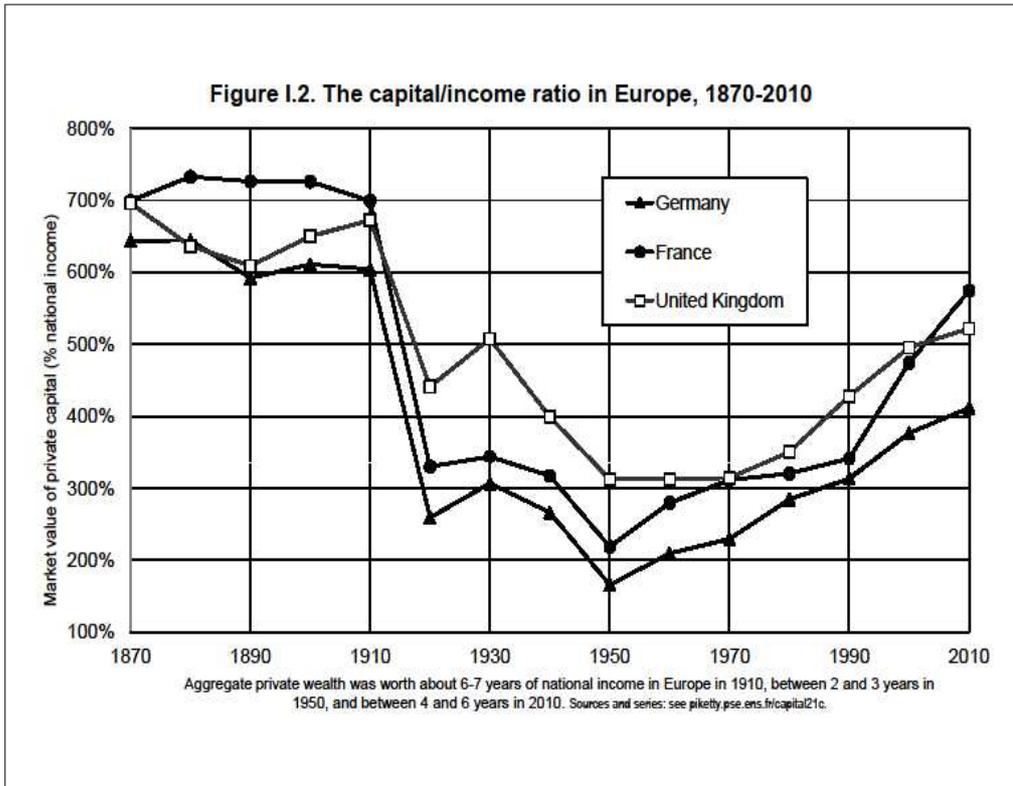
한 마디로 $\beta = W/Y$ (한 나라의 순자산, 부를 1년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80년대 이후에 치솟고 이들 자산의 수익률(r)이 일정하다면 자산소유자(자본)가 가져가는 몫($\alpha = r\beta$)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다. 피케티의 무기는 자본주의 300년 역사 동안 주요 선진국의 β , r 을 추정해 장기 통계다.

β 는 19세기 말에 600-700%로 가장 높았고 두 번의 전쟁과 대공황 시기에 200-300%로 떨어졌다가 80년대 이후부터 다시 치솟아서 이제 19세기 말 상황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그림1 참조) 또한 r 은 전 기간 동안 4-5%로 일정했다(그림2 참조).

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9> 참고



그림 1.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β) 추이



출처 : Piketty, 2014,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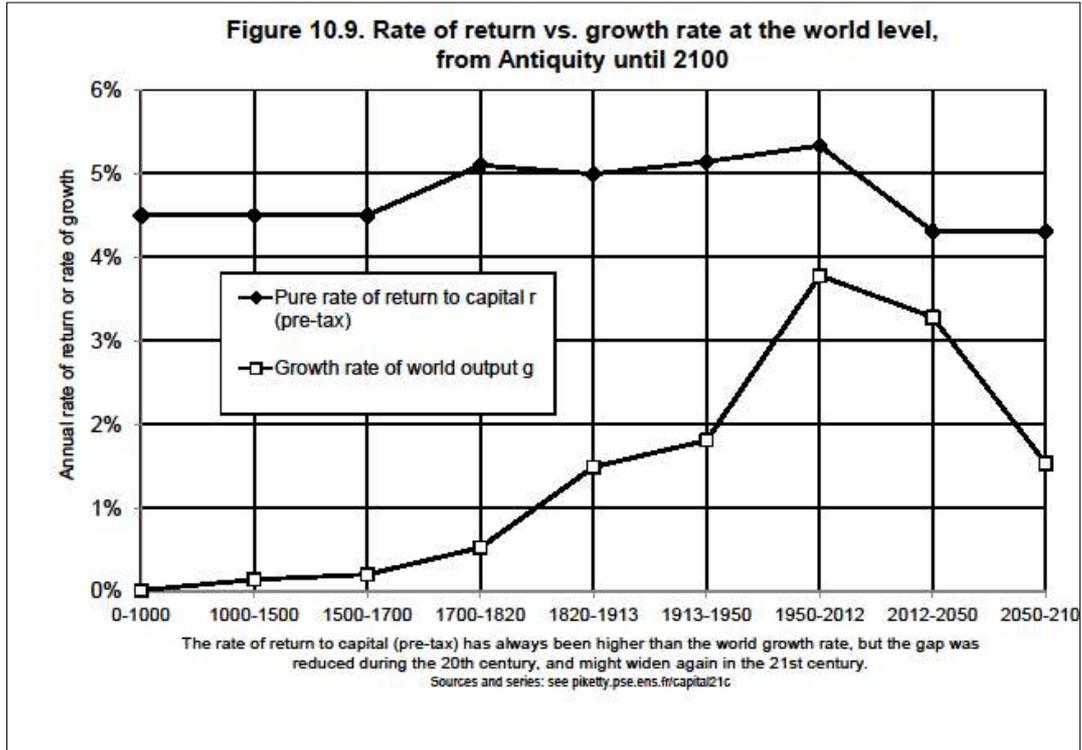
더욱이 피케티는 장기적으로 β 가 s/g (저축율을 경제성장율로 나눈 값)에 수렴할텐데(경제학적으로 말하면 steday state에 도달하는 것) g 는 점점 더 떨어져서 기껏해야 1.5% 정도에 머물 거라고 추정한다. 무엇보다도 인구성장율이 점점 떨어져서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성장율이 높을 수가 없을 것이다. 즉 $\alpha = r\beta = r*s/g$ 인데 r 과 g 의 격차가 커지면 자본 몫(α)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r-g$ 의 값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그림2 참조).

피케티의 또 하나의 업적은 이런 상황을 기초로 해서 소득분위별 소득과 재산의 추이를 추적한 것이다. 국민계정 통계와 세금 자료를 엮어서 장기 통계를 추정했는데 현재 대체로 상위 10%가 순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더 나아가 1%가 그 반인 30-4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그림3 참조). 자산과 소득의 상위 집중이 점점 더 커지면 당연히 정치와 사법부까지 부자들이 마음대로 뒤흔드는 유럽의 “벨 에이포크”, 미국의 “도금시대”²⁾가 부화할 것이다. 한편 피케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암살하는 상황이다.

2) 벨 에이포크, 도금시대 모두 대체로 18세기 말에서 1910년 경까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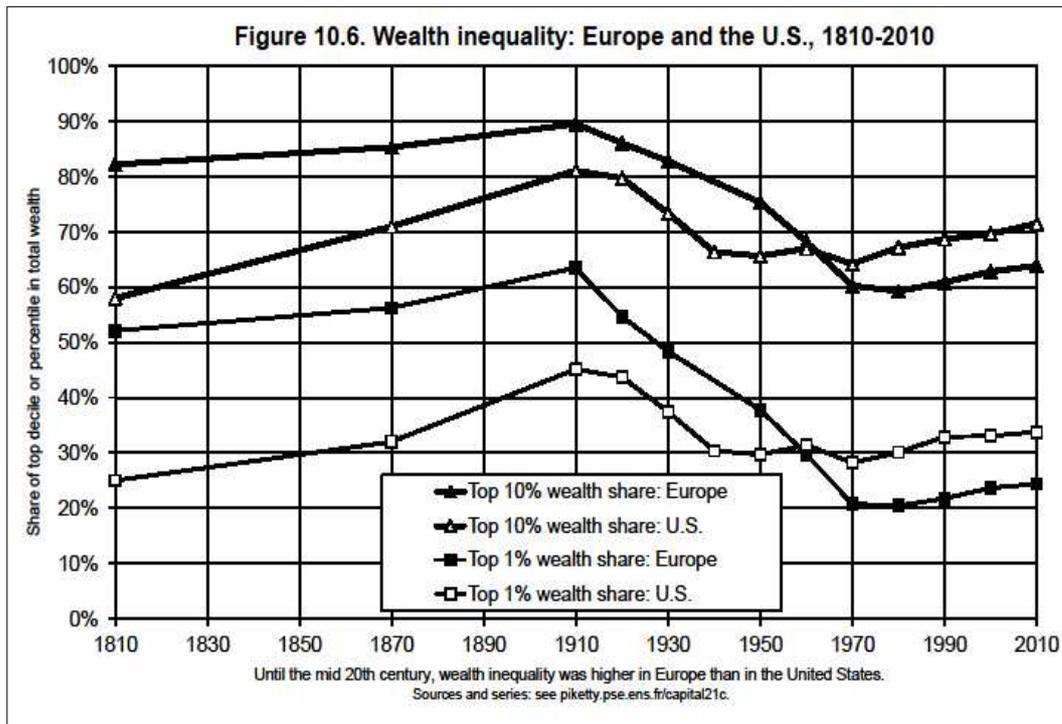


그림 2. 세계수준의 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 추이



출처 : Piketty, 2014, p354

그림 3. 유럽과 미국의 부의 불평등



출처 : Piketty, 2014, p349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피케티는 이런 장기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주류 이론을 비판한다.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만개한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피케티의 장기 역사에선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자본주의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어느 선을 지나면 분배가 개선될 것이다”)이 바로 그렇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는 분배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니까요. 즉 당시(전후 1970년대까지)의 분배 개선은 두 번의 전쟁과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의 물리적 파괴, 최고세율 90% 이상이었던 누진소득세, 나아가서 강한 금융규제 등 때문에 분배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론 80년대 이후에는 정반대의 정책이 사용되었다.

또 모딜리아니의 “평생주기 저축 가설”(“사람은 평생을 고려해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주로 노후의 삶을 위해 저축을 하기 때문에 사망 시점이 되면 자산 0인 상태가 될 것이다”)도 비판받는다. 80년대 이후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누구의 아이로 태어났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상속 재산에 의한 “세습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가깝다.

나아가서 생산에 기여한 바 대로 보수를 받을 거라고 주장하는 “한계생산력설”, 교육과 노력에 의해 성장률이 결정될 거라는 “인적 자본론”로 모두 비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듯이 교육이 사회이동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벽이 되고 있다. 적어도 장기 통계로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주먹구구식인 한국의 β 값은

그렇다면 한국에선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나올까? 장기 시계열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국민계정으로 자산소득(피케티의 자본)을 추계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냈다.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³⁾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 값(의 근사치)이다. 이번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민순자

3) 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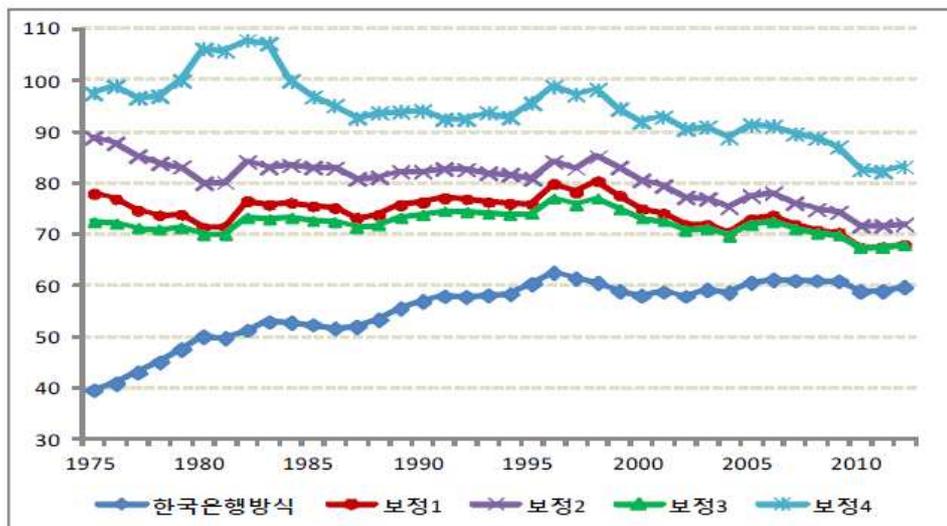


산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β 값의 근사치는 7.7 또는 770%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β 는 4에서 6이다. 피케티는 개념 상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국민소득(NI)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β 는 8-9가 될지도 모른다. 이를 “주먹구구” 라고 한 건 피케티가 책에서 평이한 설명을 할 때는 1인당 GDP 개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β 값은 8을 넘는다. 유럽의 “벨에이포크 시대” 이상으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그럼 자본 몫(α)은 어떨까? 그림2에서 피케티는 인류 역사상 자본의 수익률이 4-5%로 일정했다고 하지만 산업혁명 이래의 수익률은 5% 정도였고 특히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5%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세계 평균보다 높았을 테고 최근에는 거의 비슷해졌다고 가정하면 대체로 5-6%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본 몫($\alpha = r\beta$)은 대략 $5 \times 7.7 = 38.5\%$ 에서 $6 \times 8 = 48\%$ 사이의 값일 것이다.

현실 통계에서 노동 몫은 피용자보수/국민소득으로 계산된다. 물론 여기서도 자영업자의 잉여 중에 어느 전도나 피용자 보수에 포함시킬 건지, 국민소득은 어떤 수치로 할 건지가 논란이 된다. 공식 통계인 한은의 노동분배율(노동 몫)은 자영업자의 잉여를 피용자 보수에 넣지 않는다. 2000년 이후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60% 수준(〈그림4〉)이니까 자본 몫은 40% 정도가 된다(자영업자의 소득 중 2/3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면 자본 몫은 약 30%이다 〈그림4〉에서 보정3).

그림 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출처 : 이병희외, 2013,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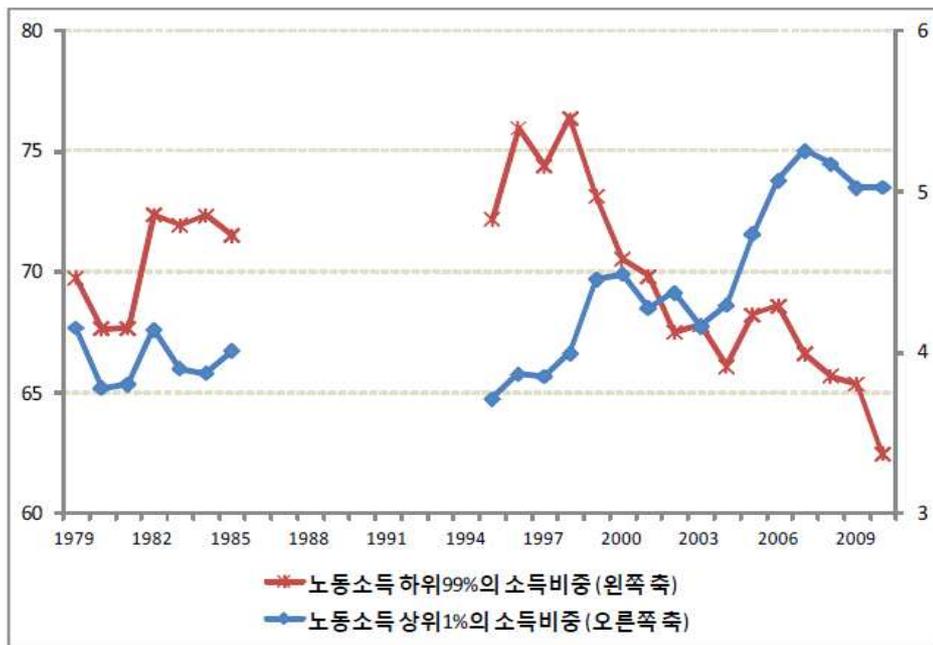


결국 피케티의 제1법칙⁴⁾은 한국의 국민계정 상에서도 대체로 확인된다. 우리가 피케티의 논지를 받아들인다면 자본 몫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수치인 β 가 선진국 이상으로 올라갔다. 한은과 통계청의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가 주로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기능별 분배 상황은 이미 세계에서조차 최악에 속한다. 자본 몫이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익률(r)이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고 인구증가율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율도 정체한다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부의 집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상층(10%)과 최상층(1%)가 얼마나 자산이나 자본소득을 벌어들이는지에 관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노동소득에서도 최상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그림4 참조). 경영진과 일반 노동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우리나라 노동소득 하위 99%의 소득비중과 상위 1%의 소득 비중



출처 : 이병희외, 2013, p53

4) 제1법칙이란 “회계적 항등식” 이므로 통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다. 다만 각각의 책이나 보고서가 자신의 정의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는지 지금 정확하지 않을 뿐이다



‘죽은 노동의 힘’ 이 압도적인 건 당연하다. 그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은 노동은 당연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 역시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00만년 이상의 역사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한 톨의 기여를 덧붙일 뿐이다. 그런데 감히 찰나 1%에 불과한 자들이 공유자산을 독점하고, 심지어 미래의 인류가 두려워 할 자산마저 파괴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5월 1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한국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정태인